
발행처 : 한국건강심리학회

발행일 : 2014년 6월 30일

발행인 : 현 명 호

인쇄일 : 2014년 6월 30일

주 소 :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대학원
성격 및 개인차 연구회 (302동 B107호)

제작처 : 나노미디어(전화: 02-703-7507)

전 화 : 070-4806-3331 팩스 : 02-816-5124

홈페이지 : <http://www.healthpsy.or.kr>

편집장 e-mail 주소 : rhoma777@hanmail.net

편집위원장 : 서경현(삼육대학교)

편집위원 : 강성군(강원랜드) 고영건(고려대학교) 권선중(침례신학대학교) 김용희(광주대학교)

유제민(강남대학교) 이민규(경상대학교) 이인혜(강원대학교) 장문선(경북대학교) 조성근(충남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한국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건강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하며, 건강심리학회의 공식적 학술 모임의 발표 내용과 건강심리학 분야의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 목록을 게재할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구독에 관해서는 한국건강심리학회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19, No. 2.

June. 2014.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published by

b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 per year and publishes original research articles and data. The Journal also publishes reports of the proceedings of academic meetings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Psycholog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views on the profession of Health Psychology, and a list of M. A. theses and Ph.D. dissertation in this area. Inquiries concerning the guidelines of the subscription for the Journal and the submission of manuscripts should be sent to: Editor, Kyung-Hyun Suh,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E-mail : rhoma777@hanmail.net)

Editor : Kyung-Hyun Suh(Sahmyook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Sung-Gun Kang(Kangwonland Addiction Care Center), Young-Gun Go(Korea University), Sun-Jung Kwon(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Yong-Hee Kim(Gwangju University), Jhe-Min You(Kangnam University), Min-Kyu Rhee(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Hyae Yi(Kangwon National University), Mun-Sun Chang(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ng-Gun Cho(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이 학술지는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한국건강심리학회 임원진

회 장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수석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국내협력부회장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국제협력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총무이사 조 성 근 (충남대학교)
교육이사 권 선 중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홍보이사 최 성 진 (부산메리놀병원)
학술이사 조 현 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재무이사 심 은 정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위원장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편집위원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수련위원장 박 준 호 (대전대학교 산업광고심리학과)

선임이사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고 진 경 (송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미리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김 용 희 (광주대학교 심리학과)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안귀여루 (강남대학교 학교 교육대학원)
장 문 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최 미 례 (육군사관학교 리더십센터)

감 사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고 문 김 교 현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국장 주 해 원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간사 홍 혜 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편집간사 김 선 미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 19 권 제 2 호

[개관논문]

코칭에서의 마음챙김과 수용-전념 기반 접근법 손 정 락 / 453

[경험논문]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기술훈련이 정서지능이 낮은 대학생의 정서지능,
대인관계문제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최 초 룡·손 정 락 / 469

NLP 상담 프로그램이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정 윤 주·김 윤 주 / 485

자비명상과 마음챙김명상의 효과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 김 완 석·신 강 현·김 경 일 / 509

마음챙김 명상이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의 우울, 불안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 서 은 성·김 미 리 혜·김 정 호 / 533

부모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정 기 원·안 귀 여 루 / 549

여성 독거노인의 후회, 자기노출, 원한 및 용서와 웰빙 간의 관계 서 경 현 / 565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살생각과 자아 통제감, 무망감 및 가족지지의 관계
..... 권 영 실·현 명 호 / 585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
- 도박 빚 압박감의 매개효과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
..... 권 영 실·김 현 정·김 소 라·현 명 호 / 603

대학생의 감사 성향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손 솔·서 경 현 / 619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 - 도박 빛 압박감의 매개효과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

권영실 김현정 김소라 현명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도박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히고자 도박심각도, 도박 빛에 대한 압박감, 가족의 정서적 지지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도박 경험이 있는 도박중독 치유 및 상담 센터 내방자와 도박 시설 이용자 17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첫째, 도박자의 도박행동이 심각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도박 빛으로 인한 압박감이 그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박심각도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직접 경로와 도박심각도가 도박 빛 압박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간접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도박심각도와 상호작용하여 자살생각을 완충하는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박자의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증진하는 전략과 도박심각도 및 도박 빛에 대한 압박감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살생각, 도박심각도, 도박 빛에 대한 압박감, 가족의 정서적 지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5125, E-mail : hyunmh@cau.ac.kr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행위’로 자살을 정의하고 있다. 2002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8위였던 자살은 2012년 4위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28.1명으로 OECD 평균 12.5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13).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자살률은 자살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도박집단의 자살 위험성은 특히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도박중독과 그로 인한 이차적 문제로 심적 고통을 겪는 도박중독군은 자살 위험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12). 도박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과도한 도박은 빚을 증가시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가족과 친구와의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도박은 법적인 문제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이경희, 도승이, 김준남, 이순목, 2011). 또한 이들은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attersby, Tolchard, Scurrah, & Thomas, 2006; Maccallum & Blaszczynski, 2003; Petry & Kiluk, 2002). 따라서 도박과 관련한 자살을 예방하는 데 있어 도박행동과 관련하여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이해하는 구체화된 작업이 요구된다.

도박의 심각성을 연속선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 따르면 사교오락적 도박, 문제성 도박 그리고 병적 도박으로 구분된다. 사교오락적 도박은 재미나 사교의 목적으로 도박행동을 하며 도박에 사용하는 시간과 금액의 조절이 가능하고 일상생활

과 역할기능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더 나아가 도박에 사용하는 시간과 금액이 증가하고, 도박행동 및 결과를 숨기며, 개인의 통제력 일부를 상실하여 일상생활과 역할기능에 피해가 초래될 정도로 도박에 몰입된 상태를 문제성 도박으로, 도박행동으로 인해서 일상생활과 역할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거나 통제력 상실이 심화된 상태를 병적 도박이라고 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1).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체계(DSM-5, 2013)에 따르면 도박장애를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 포함시키고, 흥분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도박에 사용하며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단을 실패하고 도박에 집착하며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중요한 영역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9가지 기준 중 4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병적 도박 상태인 도박 장애로 진단한다.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6.1%로 영국 2.5%, 프랑스 1.3%, 호주의 유병률 2.4%에 비해 2-3배 높은 편이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 우리나라 도박이용자 중 중위험군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220만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우울 및 불안 등 공존 유병률이 높고 특히 자살의 위험성도 높다. 또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76조 2천억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 2012). 대검찰청 범죄분석(2010)에 따르면,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사기, 자금횡령, 부도수표 발행, 세금포탈, 절도, 재물 범죄 등이 급증했다고 한다.

많은 연구자는 도박중독이 심각해짐에 따라 자살을 고려하고 시도하는 등 자살의 위험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Phillips, Welty와 Smith(1997)는 1969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의 주요 도박 도시인 라

스베가스, 리노, 아틀랜틱 시티의 자살률을 다른 대도시와 비교했다. 그 결과 이 지역 거주민과 도박을 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의 자살률은 매우 높았다. 라스베가스는 거주민과 방문객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고, 아틀랜틱 시티에서는 도박장이 개장을 한 이후에 거주민과 방문한 사람의 자살률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 자살이 사망 원인인 비율은 전국 평균 0.97%인 반면에 라스베가스는 4.28% 리노는 2.31%, 아틀랜틱 시티는 1.87%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카지노가 위치한 강원도는 전국에서 평균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카지노 시설인 하이원이 개장한 2006년 강원도의 자살률은 인구 십만 명 당 31.6명이었으나, 2011년은 45.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통계청, 2012).

많은 병적 도박자가 자살을 도박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생각한다(Sullivan, 1994). Moran(1969)은 영국의 익명의 도박중독자(GA: Gamblers Anonymous) 162명을 조사한 결과 도박자의 77%는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고, 이들 중 20%는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1,47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박과 자살에 관해 조사했는데, 도박 문제가 없는 대학생은 7.25%가 자살 시도를 한 반면에 과도한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던 대학생은 26.8%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도박 중독자의 자살 행동은 도박 수준이 심각도와 관련되고(Newman & Thompson, 2003), DSM-IV의 도박중독 진단 기준에 더 많이 해당될수록 자살생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Hodgin, Mansley, & Thygesen, 2006).

우리나라에서도 과도한 도박자 496명을 대상으

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측정된 결과 자주 자살을 생각한 사람은 50명(10%), 실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11명(2.2%)이었다(이태원, 2009). 또한, 국내 도박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문제성 및 병적 도박그룹에서 자살성이 높게 보고되었다(Park et al., 20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살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가장 선행하는 도박 이용자의 자살생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Brown & Vinokur, 2003; De Leo, Buono, & Dwyer, 2002; Scocco & De Leo, 2002), 도박행동의 심각도와 자살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도박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도박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도박에 사용하는 지출액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의 수준별 월 평균 지출액을 비교한 결과, 도박 중독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사업장 이용객 중, 비문제성 이용자는 평균 지출액이 175만원인 반면에 중위험·문제성 이용자의 평균 지출액은 1,731만원이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a). 따라서, 도박으로 인한 지출이 증가할수록 도박자가 빛 문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도박중독이 심각해짐에 따라 개인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경제적인 파산, 신용 상실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협에 노출된다(이홍표, 2002).

한편, 이렇게 증가된 빛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자살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 통계청(2012) 사회조사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를 경제적 어려움(39.5%), 가정불화(13.6%), 외로움 및 고독(13.0%),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장애(12.1%) 순으로 보고하였다. 미국에

서는 1980년대 농업경제가 악화되었을 때, 경제적 인 스트레스로 인해 농부의 자살이 증가하였다 (Dyer, 1997). 홍콩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수많은 회사가 파산하였는데 그 당시 인구 십만명 당 12.1명이던 홍콩의 자살률이 2003년에는 18.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년층의 자살률이 가장 극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자살한 중년층의 빛의 비율은 15%에서 거의 50%로 증가하였다(Yip, Yang, Ip, Law, & Watson, 2007). 또한 빛 문제는 범죄, 이혼, 가정폭력과 같은 이차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Blaszczynski & Farrell, 1998; Chuanc & Huang, 1997).

Frank, Lester와 Wexler(1991)는 164명의 GA 회원 중 자살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48%였고, 추가적으로 자살시도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13%였다고 밝혔다. 자살생각이 없는 도박자와 비교해 봤을 때 자살생각이 있는 도박자는 더욱 심각한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법적인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도박행동의 심각성으로 파생된 도박 빛에 대한 압박감 및 스트레스는 도박심각도와 자살의 관계를 매개하는 핵심인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친구, 동료, 가족 등의 대인관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도움을 의미하며 지지 내용의 기능적인 분류에 따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나뉜다(박지원, 1985). 본 연구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의 효

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유익한 정보나 조언을 주는 정보적 지지, 재원이나 시간, 도구를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와 같이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 개인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며 격려의 말을 건네는 등 사랑과 편안함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원정숙, 조희, 1999).

사회적 지지 이론에 따르면, 지지가 스트레스나 병리 정도에 관계없이 개인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직접효과 모델과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병리적인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정적 영향을 중재한다고 하는 완충효과 모델이 있다(정순임, 이은남, 송영선, 2006).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지를 비롯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사건과 스트레스 경험 사이를 중재하여 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잠재적 위험을 재정의하고 감소시키며 대처 능력을 지지하여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한다는 완충효과를 가정하였다. 즉, 지지가 높은 조건보다 지지가 낮은 조건에서 병리적 요인 또는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충격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경험과 병리적 변화사이를 중재하여 스트레스 경험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하고, 원인이 되는 질병행위나 생리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신경·내분기계를 안정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Cohen & Mckay, 1984; Gore, 1981; House, 1981). 또한, 가족 지지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개인대처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Eckenrode, 1983). 지각된 지지의 유용성과 생활사건 지표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도 완충효과가 유의하였으며 특히, 지각된 지지 중 정서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유의하였다(Broadhead et al., 1983; Gottlieb, 1981; Greenblatt, Becerra, & Serafetinides, 1982; Leavy, 1983).

가족의 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은 자살생각 및 우울증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박미진, 2009; Harris & Molock, 2000). 노인에게 가족 지지는 우울과 자살생각에서 중재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인정, 2011) 가족원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인 가족 응집력은 노인의 자살충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최인, 김영숙, 서경현, 2009). 청소년의 경우에도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청소년은 불안이나 우울, 적대감을 더 높게 보고했으며 학교에서의 문제, 대인 갈등, 비행행동, 자살행동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경애, 정민정, 2007; Barber & Erickson, 2001). 이처럼 가족의 지지는 대처하기 쉽지 않은 스트레스 사건을 직면했을 때 자살충동에 이르지 않고 이를 극복하게 하는 보호요인이며(이윤주, 2008) 자살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임수영, 1996). 가족 변인 중에서도 정서적 유대 및 결속을 의미하는 가족 응집력이 가족적응력보다 자살생각과의 부적 상관이 더욱 높았음을 확인하였는데(김효정, 정미애, 2010), 이는 가족 관계와 같은 정서적인 요인이 자살생각에 탁월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따라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개인의 도박에 대한 심각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반되는 경제적, 직업적, 가정적, 법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증진시키

는 중요한 개인의 자원으로 기능할 것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도박 심각성으로 인해 여러 삶의 주요한 기능을 상실하고 불안, 우울, 죄책감 등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심적 고통을 경험하는 개인이 극단적인 자살이라고 하는 심적 결론에 이르지 않게 하고 삶을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지지자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서울, 경인, 강원, 부산 지역의 도박중독 치유 및 상담 센터 내방자와 도박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단, 지능지수가 평균수준 미만이거나 대뇌의 기질적 손상이 있는 경우, 정신 장애 또는 성격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총 186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을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7명의 자료를 제외한 179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중 현재까지 자살시도를 한 번 이상 했던 참가자는 5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0.3%에 달했으며, 그 중 도박과 관련하여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는 40명으로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의 75%에 해당하였다. 최근 일 년 간 자살시도의 경험이 있는 경우도 2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1.7%에 해당했다.

참여자의 성은 남자가 140명(78.2%), 여자가 34명(19%), 무응답 5명(2.8%)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49.54세(±11.54)였다. 참여자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18명(10.4%), 고졸은 84명(48.6%), 대졸 이상은

71명(41.0%)이었다. 또한 현재 결혼 상태는 기혼 및 동거가 90명(51.7%)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별거, 사별이 50명(28.7%), 미혼이 33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현재 직업은 무직과 휴직 상태가 64명(36.6%)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37명(21.1%), 불규칙한 시간제 27명(15.4%), 정규직이라고 보고한 사람은 37명(21.1%)에 불과했다. 참여자가 지각한 자신의 경제적 상태는 90명(52.3%)이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보통 79명(45.9%), 부유하다고 지각한 응답자는 3명(1.7%)에 불과했다.

연구 절차

참여자에게 도박심각도, 도박으로 인한 빚에 대한 압박감, 자살생각, 가족의 정서적 지지, 인구통계학적 질문의 순으로 이루어진 총 49문항의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측정 도구

도박심각도(The Severity of Gambling Behavior). 도박심각도 수준은 이순목 등(2011)이 개발한 한국형 도박행동 변별척도(Korean Gambling Behavior Scale)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으로 국민일반 집단용 KGBS-L과 도박 현장 참여자용 KGBS-H 통합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현장 참여자의 도박심각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수준용 KGBS-H를 사용하였다. KGBS-H는 공중보건적 관점에서 제작된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되 한국적

문화에 기초하여 도박 현장 참여자용 도박중독수준을 변별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기존의 K-NODS(K-NORC DSM-IV Screen for Gambling Problems)와 KCPGI(Korean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와 연계하여 기준점수를 설정하여 임상적으로 타당화시켰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1). KGBS-H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KGBS-H척도는 도박심각도에 따라 3수준으로 구분되며 1수준(0-9점)은 사교오락 도박, 2수준(10-15점)은 문제성 도박, 3수준(16점 이상)은 병적 도박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1수준은 37명(20.7%), 2수준 36명(20.1%), 3수준 106명(59.2%)에 해당하며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도박 빚에 대한 압박감(Psychological Pressure in Debt related to Gambling). 도박으로 인한 빚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측정하기 위해 '도박과 관련한 경제적인 빚으로 인한 심적 압박감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고 0점(전혀 없다), 5점(보통이다), 10점(정말 심하게 느낀다)의 예시를 주고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가 도박 빚에 대해 느끼는 심적 압박감의 평균은 평균 5.36, 표준편차 3.58이었다.

가족의 정서적 지지(Family's Emotional Support). 지각된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가족지지척도(family suppor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원정숙과 조희(1999)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본 연구

에서는 가족의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의 4가지 하위영역 중 정서적 지지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게 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자살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Reynolds(1987)의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IQ)를 신민섭(1992)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for Window 20.0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하고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변인 간 상관을 실시하였다. 셋째,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도박 심각도에 따른 자살생각에서 도박으로 인한 빛에 대한 압박감의 매개효과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중다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 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나는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기 위해 변인을 센터링(centering)하고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박 심각성과 가족

의 정서적 지지를 상위 하위 각각 30%으로 나누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의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자살생각과 관련된 도박심각도, 도박 빛에 대한 압박감,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전반적 관계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은 $r = .58,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도박심각도가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도박 심각도와 빛에 대한 압박감 간의 상관, $r = .52$, 과 빛에 대한 압박감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 $r = .45$, 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자살생각은 $r = -.43,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지각된 가족의 정서적 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은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도박 빛에 대한 압박감의 매개효과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빛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매개 검증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도박심각도가 빛에 대한 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beta = .52, p <$

.001. 둘째, 도박심각도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도 유의하였다, $\beta = .58, p < .001$. 셋째, 매개 변인인 도박 빛에 대한 압박감을 포함시켰을 때 자살생각에 대한 도박심각도, $\beta = .47, p < .001$, 와 도박 빛에 대한 압박감, $\beta = .20, p < .01$, 의 영향력이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의 단계에서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도박심각도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beta = .58 \rightarrow \beta = .47, \text{Sobel's } Z = 5.19, p < .001$,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빛에 대한 압박감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다.

도박심각도에 따른 자살생각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증재효과

도박심각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자살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첫째, 모델 1에서는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도박심각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델 1의 자살생각에 대한 도박심각도의 설명력은 33.7%로 유의하였다. 둘째, 모델 2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이 41.9%로 모델 1에 비하여 8.2% 증가하여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 3에서는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증재효과를 알아보려고, 도박심각도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델 3의 설명력은 43.9%로 모델 2에 비하여 2.0%증가하였고 도박심각도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항도 유의하였다. 따라서, 도박심각도가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지만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도박심

표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평균	표준편차
1. 도박심각도	-				26.36	8.11
2. 도박 빛에 대한 압박감	.52**	-			5.36	3.59
3. 자살생각	.58**	.45**	-		43.15	19.78
4. 가족의 정서적 지지	-.28**	-.37**	-.43**	-	23.22	7.27

** $p < .01$.

표 2. 자살생각 관련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F	R ²	β
1단계	빛에 대한 압박감	도박심각도	65.78	.27	.52***
2단계	자살생각	도박심각도	89.94	.33	.58***
3단계	자살생각	도박심각도	50.98	.36	.47***
		빛에 대한 압박감			.20**

** $p < .01$, *** $p < .001$.

각도에 따른 자살생각의 영향을 중재하고 있다.

자살생각에 대한 도박심각도와 가족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인인 도박심각도와 중재변인인 가족 정서적 지지의 점수대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박심각도는 1수

준(사교오락 도박)과 3수준(병적 도박)으로 나누고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평균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점수대가 높은 집단을 고집단, 점수대가 낮은 집단을 저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은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가족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표 3.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

	자살생각					
	모델1		모델2		모델3	
	β	t	β	t	β	t
도박심각도	.58	9.48***	.49	8.30***	.52	8.75***
가족의 정서적 지지			-.29	-4.97***	-.28	-.85***
도박심각도 * 가족의 정서적 지지					-.14	-2.53*
R^2	.337		.419		.439	
R^2 변화량	.337		.082		.020	
F	89.94***		63.34***		45.66***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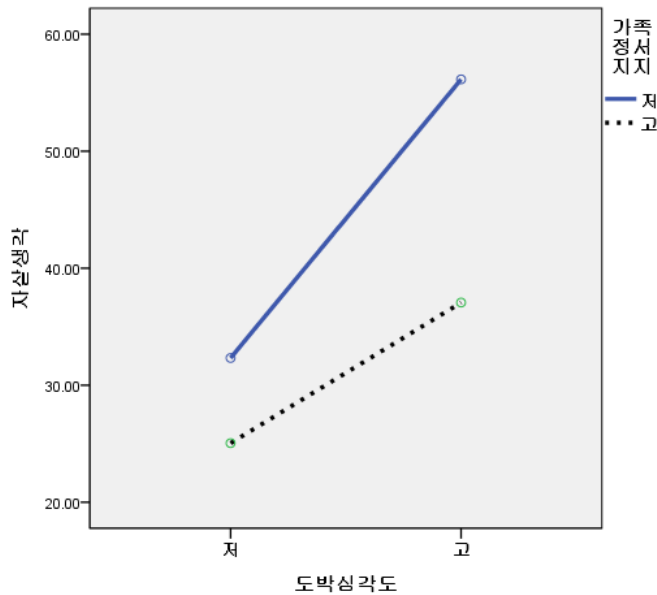


그림 1. 도박심각도와 가족의 정서적지지 수준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

분석 결과,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낮은 경우, $F(1,90)=42.75$, $\beta = .57$, $p < .001$, 와 높은 경우, $F(1,87)=23.81$, $\beta = .46$, $p < .001$, 에서 도박심각도에 따른 자살생각의 영향이 모두 유의하였다. 그러나 β 값으로 인한 설명력의 차이로 보아 가족 정서적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의 도박심각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가족 정서적 지지의 효과는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 유의하나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수준일 때 도박심각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국내 도박시장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한해 불법도박 전체 규모는 75조로 추정되며 이는 2008년 53조원에 비해 1.4배 증가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b). 또한, 국내 사행산업장 전체 이용자의 연 평균 지출액도 2008년 1억 1천만원에서 2011년 4억 3천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a).

이렇듯, 도박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개인과 가족은 고스란히 떠안게 되며, 본 연구에서 도박시설이용자의 약 23%가 도박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보고한 것과 같이 일부는 자살이라는 방편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한다. Shneidman (1987)은 '가장 전형적인 자살의 모습은 자기 목을 찌르면서 동시에 도와줄 것을 절규하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 행위는 모두 진실된 것이다. 그런 것

을 안 해도 된다면 기꺼이 그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살의 양면적인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살자가 갖는 자살 의도의 양가성을 고려해 볼 때, 도박심각성이 높은 개인이 자살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심층적 고통과 호소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자살위험에 대한 개입을 계획하고 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함에 있어 가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의 심각성에 따라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과정과 자살생각을 중재하는 보호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박 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도박 빛에 대한 매개효과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전국의 도박 경험이 있는 도박 중독치유센터 내방자와 도박 시설 이용자 179명을 대상으로 변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박 심각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박의 심각도와 자살의 위험성이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였다(Hodgins, Mansley, & Thygesen, 2006; Newman & Thompson, 2003). 개인이 도박에 빠져들면서 나타나는 중독의 진행도와 다양한 삶의 파괴적 결과는 자살에 대한 욕구를 직접 증가시켜 자살사고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도박 심각도가 높은 도박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과 자살위험의 평가 및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둘째, 도박으로 인한 빛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도박 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도박심각도가 자살생각으로 가는 직접 경로 뿐 아니라 도박심각도가 도박 빛을 통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간접 경로

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도박 빛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커지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박 중독과정에 이르면서 나타나는 도박으로 인한 부채, 신용불량, 경제적 파탄의 과정을 확인한 선행 연구 및 도박으로 인한 빛과 자살 욕구에 대한 선행 연구와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이경희 등, 2011; Blaszczynski & Farrell, 1998; Wong, Chan, Conwell, Conner, & Yip, 2010). 즉, 도박중독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서 빛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시켜 자살에 대한 생각을 높인다는 것이다.

셋째,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도박의 심각성이 높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가족의 높은 정서적 지지는 자살생각을 완충해주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가족은 개인에게 정서적 지지감을 제공해주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1차적 관계망으로서 작용한다(Hovey & King, 1996). 공감이나 염려나 관심을 전달하는 정서적 지지는 극한 스트레스와 절망에 처한 개인에게 안도감과 희망을 전달해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대처를 긍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게 한다(Harris & Molock, 2000). 따라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활용하고 증진하는 개입은 도박심각도가 높은 개인의 자살위험성을 줄이고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도박심각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경로와 도박심각도에 따른 도박 빛에 대한 심적 압박감을 통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간접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도박 이용자의 자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박 치료 및 도박 이용 현장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도박심각도와 도박심각도에 따른 도박 빛으로 인한 압박감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도박의 심각성으로 인해 자살 위험성이 높은 개인에게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고 활용하는 접근은 자살위험의 가장 선행요인인 자살생각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박 빛에 대한 압박감 측정의 신뢰도 문제이다. 도박 빛에 대한 주관적인 압박감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가 없어서 단일 문항으로 이를 측정하였다. 도박행동에 있어서 경제적 손실과 부채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의 개발과 추후연구에서 타당한 측정과 활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도박과 자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실제 자살을 추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자살생각(Suicide Ideation)을 기초로 변인 간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Kessler, Berglund, Borge, Nock와 Wang(2005)이 주장한 자살에 대한 스펙트럼(Spectrum of Suicidality) 이론에 따르면, 자살생각은 자살행동과 시도에 선행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자살생각에 대해서만 살펴본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도박심각도에 따른 자살 시도 및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완결된 자살자에 대한 변인

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장 이용 도박자와 장외발매소 이용자에 따라 도박심각도 및 1인당 도박지출액의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a; 국회예산정책처, 2013).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본장 이용객과 장외발매소 이용객으로 나누어 도박심각도, 도박 빛에 대한 압박감, 자살관련 행동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한 횡단연구로써 자기보고에 따른 주관적 편향이 통제되지 못했으며 인과론적인 설명을 할 때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도박이용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관계를 확인하고 자살 예방 개입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도박이용자가 도박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자살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도박 빛에 대한 심적 압박감이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박이용자의 완결된 자살에 가장 선행하는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요인인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도박 심각도가 높은 도박자과 도박행동으로 인해 파생된 빛에 대한 주관적인 압박감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자살 위험 평가 및 개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자살생각이 높은 도박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활용·강화하는 전략은 도박자의 자살위험을 줄이는데 있어 전망 있는 대안으로 고려된다.

참 고 문 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3). 2013년 공공부문 사행산업평가.
- 고경애, 정민정 (2007). 가족기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301-320.
- 김효정, 정미애 (2010).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43-50.
- 대검찰청(2010). 201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 박미진 (2009). 지역사회거주노인의 부정적인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보상효과와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 199-214.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 (2012). 국가 중독예방관리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1). 전국민 대상 도박문제 선별척도 및 기준점수 타당화연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a). 2011년 사행산업이용 실태조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b).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 사행산업 관련 통계조사.
- 신민섭 (1992).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 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종술 (1990).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원정숙, 조희 (1999). 지역사회 정신보건 재활간호 사업기간이 재가 만성 정신질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8(1), 179-189.
- 이경희, 도승이, 김종남, 이순목 (2011). 도박이용자의 도박중독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189-213.

- 이순목, 김교현, 최용성, 이홍표, 김종남, 김수진, et al. (2011). 한국형 도박행동 h 척도의 개발: 고수준 도박자 대상의 연구용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053-1082.
- 이윤주 (2008). 청소년 자살상담. 서울: 학지사.
- 이인정 (2011).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위기사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4(4), 34-62.
- 이태원 (2009). 과도한 도박의 부정적 영향들 : 카지노 출입자들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 1251-1284.
- 이홍표 (2002).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도박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수영 (1996).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순임, 이은남, 송영선(2006). 보험심사간호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완충효과. *간호행정학회지*, 12(3), 482-490.
- 최인, 김영숙, 서경현 (2009). 노인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25, 33-56.
- 통계청 (2012). 2011년 사망원인 통계. www.kosis.kr
- 통계청 (2012). 2012년 사회조사 결과. <http://kostat.go.kr>
- 통계청 (2013). 2012년 사망원인 통계. www.kosis.k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ition(DSM-5)*. Washington, DC: Author.
- Battersby, M., Tolchard, B., Scurrah, M., & Thomas, L. (2006). Suicide ideation and behaviour in people with pathological gambling attending a treatment servic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4(3), 233-246.
- Barber, B. K., & Erickson, L. D. (2001). Adolescent social initiative antecedents in the ecology of social connection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4), 326-354.
- Blaszczynski, A., & Farrell, E. (1998). A case series of 44 completed gambling-related suicide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4(2), 93-109.
- Broadhead, W. E., Kaplan, B. H., James, S. A., Wagner, E. H., Schoenbach, B. J., Grimson, R., Heyden, S., Tibblin, G., & Gehlbach, S. H. (1983). The epidemiological evidence for a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17, 521-537.
- Brown, S. L., & Vinokur, A. D. (2003). The interplay among risk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The role of depression, poor health, and loved ones' messages of support and criticism.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1-2), 131-141.
- Chuang, H., & Huang, W. (1997). Economic and social correlates of regional suicide rates: A pooled cross-section and time-series analysi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26(3), 277-289.
- Cohen, S., & McKay, G. (1984). Social support, stress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A theoretical analysis. In A. Baum, J. E. Singer, & S. E. Taylor (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Vol. 4). Hillsdale, NJ: Erlbaum.
- De Leo, D., Buono, M. D., & Dwyer, J., (2002). Suicide among the elderl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1, 226-229.
- Dyer, J. (1997). *Harvest of rage: Why oklahoma city is only the beginning*. Westview Press Boulder, CO.
- Eckenrode, J. (1983). The mobilization of social supports: Some individual constrai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5), 509-528.
- Frank, M. L., Lester, D., & Wexler, A. (1991). Suicidal behavior among members of gamblers anonymou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7(3), 249-254.

- Gore, S. (1981). Stress-buffering functions of social support: An appraisal and clarification of research models. In B. S. Dohrenwend & B. P. Dohrenwend (Eds.), *Stressful life events and their contexts*. New York: Prodist.
- Gottlieb, B. H. (Ed.). (1981).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CA: Sage.
- Greenblatt, M., Becerra, R. M., & Serafetinides, E. A. (1982). Social networks and mental health: An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977-984.
- Harris, T. L., Molock S. D.(2000). Cultural orientation, family cohesion, and family support in suicide ideation and depression among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0*(4), 341-353.
- Hodgins, D. C., Mansley, C., & Thygesen, K. (2006). Risk factors for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among pathological gamblers. *The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15*(4), 303-310.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 Kessler, R. C., Berglund, P., Borges, G., Nock, M., & Wang, P. S. (2005). Trends in suicide ideation, plans, gestures, and attempts in the united states, 1990-1992 to 2001-2003.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3*(20), 2487-2495.
- Leavy, R. L. (1983).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order: A review.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1), 3-21.
- Maccallum, F., & Blaszczynski, A. (2003). Pathological gambling and suicidality: An analysis of severity and lethalit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3*(1), 88-98.
- Moran, J. (1969). Taking the final risk. *Mental Health*, *28*, 21-22.
- Newman, S. C., & Thompson, A. H. (2003). A Population based study of the association between pathological gambling and attempted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3*(1), 80-87.
- Park, S., Cho, M. J., Jeon, H. J., Lee, H. W., Bae, J. N., Park, J. I., et al. (2010). Prevalence, clinical correlations, comorbidities, and suicidal tendencies in pathological Korean gamblers: Results from the Korean Epidemologic Catchment Area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5*(6), 621-629.
- Petry, N. M., & Kiluk, B. D. (2002).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in treatment-seeking pathological gambler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7), 462-469.
- Phillips, D. P., Welty, W. R., & Smith, M. M. (1997). Elevated suicide levels associated with legalized gambling.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7*(4), 373-378.
- Reynolds, W. M. (1987).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IQ):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Socco, P., & De Leo, D. (2002). One-year prevalence of death thoughts, suicide ideation and behaviours in an elderly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7*(9), 842-846.
- Shneidman, E. S. (1987). A psychological approach to suicide. In G. R. VandenBos & B. K. Bryant (Eds.), *Cataclysms, crises, and catastrophes: Psychology in action*(p. 17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ullivan, S. (1994). Why compulsive gamblers are a high suicide risk. *Community Mental Health in*

New Zealand, 8, 40-47.

Wong, P. W., Chan, W. S., Conwell, Y., Conner, K. R., & Yip, P. S. (2010). A psychological autopsy study of pathological gamblers who died by suicid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0(1), 213-216.

Yip, P. S., Yang, K. C., Ip, B. Y., Law, Y., & Watson, R. (2007). Financial debt and suicide in hong ko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7(12), 2788-2799.

원고접수일: 2014년 4월 8일

논문심사일: 2014년 4월 17일

게재결정일: 2014년 5월 12일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ity of Gambling Behavior and Suicidal Ideation in Gamblers :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Pressure in Debt related to Gambl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s Emotional Support

Young-Sil Kwon Hyun-Jung Kim So-Ra Kim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severity of gambling behavior, psychological pressure of debt related to gambling, and the family's emotional support on suicidal ideation in gambl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in gamblers. Data was gathered and analyzed from 179 gamblers who had visited legal gambling facilities, and counseling centers for gambling addicts. First, the results show that the severity of gambling behavior is a risk factor for suicidal ideation in gamblers. Second, psychological pressure of debt related to gambling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ity of gambling behavior, and suicide ideation in gamblers. We found a direct path of gambling severity to suicidal ideation, and an indirect path from gambling severity, through pressure of debt related gambling, to suicidal ideation. Third, moderating effect of family emotional support was fou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ity of gambling behavior and suicide ideation in gamblers. Finall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suicidal ideation, severity of gambling behavior, psychological pressure in debt related to gambling, family emotional support